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10.(수) 11:30 < 5.10.(수) 석간 > 배포 2023. 5. 9.(화)

# 전북 익산,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

**- (주)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이 전북 익산에 식품제조공장 및 물류센터 건립**

**- '26년까지 3년간 약 4천억 원 투자, 345명 신규 고용 계획**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이 전북 익산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하고 345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5.10(수) 제8차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림푸드, (주)하림산업의 전북 익산 투자 사업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했다.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 지역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은 '26년 2월까지 익산시 식품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4산단)에 총 3,915억 원을 투자하여 냉동 건조 식품, 즉석밥 등 식품제조시설과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신규 고용 345명과 물류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간접고용 300명 등 총 645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농가와 식품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지역 농가와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식품기업들* 간 상생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계약해 생산하는 농산물 다년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가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고, 식품기업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계약재배 단가는 익산시와 지역농가, 식품기업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재배 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10%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산시가

부담함으로써 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기업들은 해당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22년 20%에서 '27년 5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하림푸드, ㈜하림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20개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요소로, ㈜하림푸드·㈜하림산업과 20개 지역 중소 식품기업들은 공동물류, 공동 마케팅, 공동구매, 공동 연구개발(R&D), 공동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기업과 근로자 간 상생을 위해,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은 연장근로 지양, 휴일근무 최소화, 보상휴가 등 근로조건 개선, 투명 경영을 위한 근로자 의견 적극 수렴을 약속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분규 자제에 협조하기로 약속한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정부가 국정목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이 지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8차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3.5.10(수) 10:00~11:00 /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D룸)
- 참석자 :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주재), 기재·고용·중기·국토부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 담당 부서 | 산업기반실<br>지역경제진흥과 | 책임자 | 과 장 | 박성진 (044-203-4420) |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은의 (044-203-44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